

지 나 간 가 을

김효숙 목사



대중(大衆)이란 말이 보편화되면서 익명으로 살아가려는 욕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 대중화의 물결이 교회에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에서조차도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풍습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오히려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예의없는 삶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한 가운데 마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후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기에 이 슈퍼마켓에서 구하지 못한 물건을 다른 슈퍼마켓에서 구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닌데도 오늘의 교회는 구원이나 믿음, 혹은 가정의 복이나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슈퍼마켓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교회라는 본질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란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공동체가 전제되지 아니하고선 불가능한 말이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의 신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함께 자라가도록 되어있는 곳이다. 그러나 믿음을 물품 구매하듯 사가는 요즘의 교회에선 공동체를 이루려는 애씀이 없고, 각자의 필요만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이루기 힘들고,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이러한 풍경은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교회학교에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조차도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부모와 자신을 연결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누군가에게 친밀히 다가서려다 기스름이하고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만, 관계가 무르익기 전에 좌절하는 교사들을,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된다.

요즘은 기억 속에 있던 가을들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어릴 적 어른들의 대열에 끼어 한 밤의 추위를 이겨가며 기도를 했던 일, 작은 가슴에 '나는 찾았네'라는 배지를 달고 끝없이 보이는 한강의 다리를 건너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던 일, 별 재미는 없어도 교회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잔치들이 참 그리워진다. 특별한 감격이 있어서라기보다, 같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었으리라.

오늘 아침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하철역에서 올라와 잠실운동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00교회의 큰 잔치가 있는 날이라고 했다. 돗자리와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까지 손에 잡은 그 행렬이 왜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는지.. 문득 그 행렬을 따라가면 기억 속의 가을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성도들과의 만남의 기쁨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던 그 시절로...

때로는 주님의교회 안에 가을의 차가운 기운이 도는 것 같아 못내 아쉬울 때가 있다. 또한 그것이 지나간 가을만을 추억하는 나의 현재임을 느끼며 오늘도 고민한다. 고민하다보면 지나간 가을보다 더 뜻해진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함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함 즐 미 울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 33호(격월간)

발행일 2001년 11월 4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고 교내)

tel. 02-416-5181~2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 례

- 1 지나간 가을/ 김효숙 목사
- 2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이인규 장로
알립니다
- 3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윤좌원 장로
- 4~5 농촌교회에서 온 편지/ 장철수 목사
- 5~6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장우형 집사
- 6~7 꽃밭에서/ 유기형 집사
- 7 무덤던 지난 여름/ 이선이 집사
- 8 가을에/ 정해춘 집사
'희망의 문'을 읽고/ 윤영범 집사
- 9 성경퍼즐
교회소식
- 10 신앙 클리닉
동시/ 이재현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이인규(충성 17구역)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일곱번이나 말씀하셨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할 모습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연이 이처럼 훼손되어 황폐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예견하지 못하시고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인류가 살 보급자리로 마련해 주신 지구는 가장 아름다운 별의 하나라고 천문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지구가 만들어진지 46억년이 되었고 인류가 출현한지 300만년이 되었다고 추산하지만, 사람들로 인하여 지구 생태계가 이처럼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0년도 안되는 최근의 일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이 저지른 탐욕적인 파괴 행위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동물과 식물, 물과 공기와 흙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화의 세계라는 것을 생물학자들이 정확히 파악하게 된 것은 약 90년 전, 한 생물학자가 이를 '생태계'라는 말로 표현하면서였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질서와 조화가 있고, 그것이 훼손되면 생물이 죽어 생명력을 잃는 것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태계가 죽었다, 또는 살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은 지구 생태계를 만드실 때 거기에 속한 생물의 구성원들, 즉 사람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에게 각각 사명과 역할을 분담시켜 주었다. 이를테면, 식물은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그 영양분들을 먹으며 생활하게 하였고, 미생물들은 동·식물들이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폐기물들(동·식물의 시체까지 포함하여)을 분해하여 그들이 다시 쓸 수 있는 원료로 환원시켜주는 일을 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외한 자연계의 생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다. 식물은 열심히 일하여 열매를 맺어 다른 동물들의 먹을거리를 장만해 주고, 동물은 이 식물을 먹으며, 비록 다른 동물을 잡아 먹더라도 함부로 살생하지는 않는다. 미생물들은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열심히 분해하여 자연을 정화시킨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더 갖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산림

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고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마음대로 내버린다. 산림이 파괴되면 햇빛을 이용한 영양분을 합성하거나, 우리들이 숨쉬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폐기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것을 분해하는 자연계의 미생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쓰레기는 쌓이게 되고, 물과 공기는 오염되어 결국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자연이 되고 마는 것이다. 생물과 무생물이 어우러진 자연생태계는 그 한 부분이 파괴되면 전체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아 결국 그 생태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게 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염된 공기와 물, 농약이나 공장 폐기물로 뒤덮인 토양은 이처럼 죽어가고 있는 생태계의 단면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 그 속에 사는 갖가지 생명체를 다스리고 관리할 막중한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을 가꾸고 관리하여 아름다운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 인간이 몫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신앙적인 소명으로 실천해야 할 절대적인 임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명을 받들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일이다. 쓰레기나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분리수거 하는 일, 전기나 물 같은 각종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일,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합성세제나 페비닐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식물의 남획을 하지 않는 일...

이런 이야기들은 그동안 우리들이 수 없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한다는 신앙적인 소명감으로 이 일을 실천해야 한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실천적인 삶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알 립 니 다

함글함을 출판부에서 알립니다.

함글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님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12월 9일(주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김완중 안수집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해주세요

윤작원 장로



1. 앓으나 서나 자식 걱정

자식이 뭐길래...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을 때 어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품안에서 키울 때도 엄마 자신은 모두 잊고 산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자식을 이 세상에 상당기간 내어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의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두려움과 공포가 닥쳐오기 시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릅답게 의와 진리 안에서 끝까지 키워 내기 위하여 부모의 걱정은 끝날 날이 없나 보다.

2.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

나도 2남 1녀를 두고 그런 심정으로 키워 왔다. 다행히(?) 유아부부터 모두 교회 학교를 다녔다. 막내놈의 6살 생일날, 그 동안 잘 키워주고 맛있는 것 많이 먹여주고 좋은 장난감도 많이 사준 부모의 노고를 은근히 자식들에게서 직접 인정받고 싶어서, 근사한 생일 케익의 불을 끈 직후 내가 물었다.

"네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산 것이 누구 덕분이라 생각하니?" 막내가 두 눈을 잠깐 깜박거리더니 그 조그만 입에서 내 기대를 저버린 엉뚱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하나님이요."

나는 세 자식을 86년부터 미국에 보냈다. 보고 싶은 마음, 불안한 마음에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쿵쿵거리던 15년이였다. 지금 현재 두 아들놈은 그곳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딸아이는 이곳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부모와 떨어져 15년을 살았으나 나는 확신한다. 20여년 전 잘 먹고 잘 입혀준 분이 "하나님이요" 하고 대답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과 동행해주셨고 그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라고.

3.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시작된 것은 교회 창립 6개월 후인 1989년 1월부터였다. 학생수는 불과 27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회의 현존하는 미래인 교회 학교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강한 의지에 따라 영아부 · 아동부 · 중고등부로 세분하였으며, 1994년에 10개부서로 확장되었다.

특히 교회 학교의 세분화와 전문화 방침에 따라 95년에 정한조 목사, 96년에 김효숙 목사, 97년 강석영 목사, 98년 김원재 목사 등 훌륭한 전임 교역자들이 매년 청빙되어 왔다. 그 결과 2001년 1월 현재 총학생수는 8개부서 780여 명에 달하며 교역자는 김효숙 전임목사의 7명의 전도사와 220여 명의 선생님이 봉사하고 있다(청년 1,2부 제외).

더욱이, 임영수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내년에 증축될 공간의 대부분은 교회 학교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심도있게 실시될 것이라 믿는다.

4. 부모님께 드리는 부탁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온전히 맡기기에는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나 교회 학교를 믿고 담임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을 꼭 교회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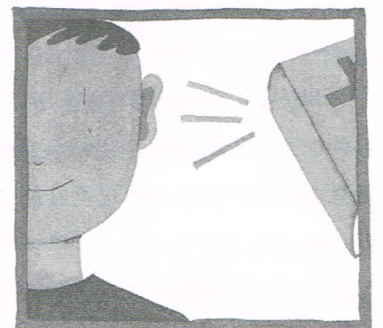
자기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여 꼭 한 번은 직접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자녀들에 대한 신앙상담이나 그 어떤 상담이라도 안심하고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자녀들의 걱정거리를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모든 행사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220여 명의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요,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실 하나님을 매주마다 열심히 새겨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의 부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다 지나기 전에 우

리 교육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부장, 지도 권사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교회에서 온 편지

장철수 목사(전남 영암군 미교교회)

가을 하늘이 한없이 열려 있는 푸르름이 깃든 하나님의 은총의 계절입니다. 길가에는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 꽃이 스쳐 지나가는 찬바람에 살랑대고 있고 들녘에서는 형형색색의 알곡들이 한 해의 열매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우님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옵신지요.

이곳 목포 앞바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미교교회는 언제나 하늘의 만나처럼 소중한 선교 지원을 하여 주시는 주님의교회에 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교교회는 삼면이 야산으로 덮여 있는 황무한 산골 오지 마을에 있습니다. 한 쪽으로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을의 가옥수는 31호이며 주민은 103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나병환자 및 간질환자 등)이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고 산자락과 강자락이 어우러져 있는 깊은 산골로 찾아와서 서로가 은둔하면서 삶의 터전을 자연스럽게 마련하면서 형성된 것이 지금의 미교마을입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지리적 환경이나 교통이 극도로 열악한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혀 생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 하나만 부치려 해도 산길로 30리(12km)나 떨어진 면소재지인 독천까지 나가야 합니다. 마을 안에는 구멍가게조차 없기에 음료수 한 병이나 과자류, 혹은 일상용품 하나를 구하려 해도 산길을 돌아 30리 떨어진 면 소재지까지 가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초·중·고등학교들도 학교가 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날마다 통학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하루에 네 번 버스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 고립된 미교마을은 오랜 세월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채 짙은 어둠과 깊은 무속 신앙이 온 마을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술과 방탕함으로 황금의 세월을 탕진하였고 나이드는 노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는 한편 구태의연한 삶 속에서 세월의 아쉬움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젊은 나이에 술로 요절한 사람이 마을에 6명(5%)이나 되었으며, 그에 따른 가정의 붕괴로 홀로 된 과부들이 가정을 버리고 떠난 까닭으로 소년·소녀 가장과 홀로 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는 이곳 산골 오지에까지 미치게 되어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이곳 청년이 객지에서 달걀 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고 이곳 고향 땅에 부모님이라도 구원시켜 천국에 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창고와 같은 초라한 기도처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던 황폐한 이곳에 말씀을 전할 전도사도 없어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저도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일념으로 몇 개의 산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빗 한개 없는 이곳, 교회 용품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사모가 야채 장사를 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했으며,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는 과자나 빵을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를 나오게 했으며, 노인들에게는 맛있는 식사를 장만하여 교회를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자체가 무지와 강박함으로 일관된 곳일뿐만 아니라 무속 신앙으로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불신과 냉대와 훼방은 교회 강대상 앞까지 오물을 뿌리며 심술궂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 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비워두면 이곳에 와서 화투와 술판을 벌이며 난장판을 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크신 사랑을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껏 모든 환난을 견디면서 10년간 이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때의 고사리 같던 18명의 어린이들이 중·고등학교와 사회인이 되었고, 노인 성도 10여 명은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한 노인 성도 6명과 육신의 장애를 입고 있는 청년 2명과 장년 5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호의적으로 변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서서히 마을 전체에 기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면 10년 전만 해도 그토록 깊게 악의 권세가 깃들었던 이 산골 오지가 미교교회로 인하여 이렇게 광명이 찾아든 동트는 미교마을로 지금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꿈 속에도 잊지 못할 주님의교회의 크신 사랑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6년 전에는 성백술 장로님과 김성배 전도부장님께서 천리 길을 밤새껏 찾아와서 수많은 우상자를 몇 년을 거쳐 넘치도록 제공하여 주셨으며, 선교 지원금도 매달 하

늘의 만나처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재원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은 이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지극한 관심을 베풀어 주셨으며, 5년 전 수요일 밤 예배 때 어둠을 뚫고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찾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2000년) 강석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백술 장로님과 김성배 전도부장님,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저희 교회를 친히 방문해 주셔서 은혜 넘치며 감동이 충만한 예배와 친교를 가짐으로써 서울에 있는 주님의교회와 산골에 있는 미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식량이 충당되지 못하는 열악한 저희 산골 교회에 하늘의 생명수 같은 크신 선교 정책을 베풀어주시는 주님의교회에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주님의교회와 목사님 이하 모든 교우님께 평안함과 강령함이 영원하시길 두 손 모아 굽어 앙망합니다.

기 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장우형 집사(살롬 성가대 지휘자, 충성 19구역)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찌어다(시 149:1).”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홉 번 이상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활은 매일매일 새로운 과제 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감사하는 그 마음도 새로울 수밖에 없다.

새 노래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전에 한 적이 없는 노래라는 뜻이요, 둘째는 현재성을 띤 노래라는 의미이다. 시편을 깊이 음미하면 그 새 노래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이다(시 149:1)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세의 고백이다(시 149:7-8). 또한 그것은 의의 기쁜 소식이며(시 149:9), 구원에 대한 끊임 없는 선포이다(시

149:10). 이런 내용을 그 전에 행한 적이 없는 노래로 한다는 것은 전혀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거나 고백한 적이 없었다거나 의의 기쁜 소식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처해 있는 나의 입장에서 새로 부르짖고 다시금 고백하는 현재 속의 노래라는 이야기이다. 성경에서는 그 곡이 꼭 새로이 작곡된 곡이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 노래의 의미는 항상 새로 고백하고 새롭게 선포되는 기쁜 소리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 새 노래는 구속함을 얻은 이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까지 말한다(계 14:3).

몇 년 전에 어떤 복음 성가를 많이 만드신 분이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작곡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다. 이분이 주님 앞에 자신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의 곡들은 유행가의 수준조차도 안되는 조악한 곡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복음 성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점점 그 위력을 잃어가고 결국은 어느 한 곡 불려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성호를 찬양함에 있어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의 고백이 예술작품화하는데는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 노래로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제물, 즉 새 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오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독일의 만프레드메츠거(Manfred Mezger)는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가장 좋은 음악이야말로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월터 타포레스(Walter Tappolet)는 “성가는 언어와 표현 형식에 숙달한 위대한 예술가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존재하는 것이지, 신앙이 깊은(보통) 사람이 음률을 맞추기 시작할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앙과 고백만을 강조하여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도 독선의 위험과 은사의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것이다. 새 노래는 여호와 전에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의 제물이다. 대표적인 제물은 흠 없는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장 낮아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새 노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받은 은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작곡이 아니다. “나는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작곡하는 은사를 받았다”함은 이미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물의 내용은 희생이다. 아무리 나의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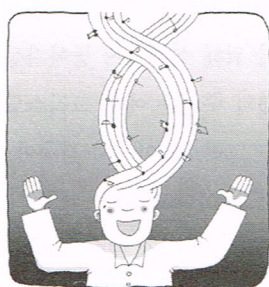
하더라도 가인의 그것처럼 자기 희생의 의미가 없는 경우 여호와를 달게 받지 않으셨다(창 4:3).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다(창 4:4). 노력과 사랑이 깃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물증으로 그는 제물을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제물로 드러지는 새 노래는 자신과 동일시가 가능하면, 노력과 사랑으로 드러지는 가장 좋은, 즉 가장 잘 익은 열매이어야 한다(참고: 루터 Saemtliche Schriften I:307).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새 노래를 발견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면 도대체 무엇이 고마워서 찬양한단 말인가!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잘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것이 곧 새 노래이다. 자신의 새 노래가 가장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노력하고 배우며 전심을 다하여 부를 노래이기에 주님 앞에 바쳐질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 노래만이 입술의 열매인 것이다.

새 노래가 주의 성전 앞에 드러지는 성가대용 찬양이든 젊은 이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돕는 전도용의 찬양이든 성경은 구분하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음악이냐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새 노래의 결과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공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편 40:3)."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새 노래는 능력 있는 찬양이요 세상의 죄악을 구분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한다.

새 노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노래를 만든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과 참회뿐만 아니라 말씀을 오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내용일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많은 사람이 보고"라고 하지 "많은 사람이 듣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어 찬양케 하는 주님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찬양하는 모습 그것에 힘주어 말한다.

결론적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 넘는 주님의 사랑과 현실 속에서 새로이 인식되는 말씀과 순간순간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수필

꽃밭에서

유기형 집사(사랑 5구역)



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된다. '꽃밭에서'라는 동요를 부르는데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라는 부분 한 곳에서 언제나 음정이 틀리곤 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부터는 입시공부다 뭐다 해서 가족끼리 노래 부를 기회가 없어져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 아마도 녀석은 아직도 그 부분의 음정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 부녀에게 있어 '꽃밭'은 언제나 웃음기 어린 단어로 다가오곤 한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옆 큰길을 따라 선수촌아파트 공원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꽃밭을 보고 있노라니 20여년 전의 그 포근하고 따스한 기억이 샘물처럼 솟아 올랐다.

아빠·엄마·오빠 그리고 이웃집 민희까지 나서서 예쁘게 가꾸던 작은 꽃밭. 형형색색의 꽃들이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갖가지 나비들이 춤추며 꿀벌들이 어지러운 날개짓으로 화답하던 곳. 특히 딸아이가 기억하는 유년의 꽃밭에는 맑은 물 줄기도 졸졸졸 흐르고 있어 그야말로 생명의 신비와 풍요의 정이 넘쳐나던 곳이었다.

얼마전 나는 몇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육신과 정신의 평온한 안위를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 조선내화(주) 이훈동 회장의 목포 사저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유달산 기슭에 자리한 3,000여평 규모의 정원엔 갖가지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래된 후지 향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께서도 생전에 그토록 이 나무를 탐냈다 하니 그 귀함이 가히 짐작이 갈 만한 일이다. 나무 하나하나에서 그 분의 다정한 숨결과 정성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듯했다.

나무뿐만 아니라 석탑·연못·석등·돌다리는 물론이요 사 이사이 오솔길을 어우러지게 보듬고 있던 옛 고옥(古屋)의 모습은 일본인들의 것보다도 대범하고 선이 굵었다. 나는 실로 오랜만에 가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런 멋에 흠뻑 젖어들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향 마을 어귀에 첫 발을 들여 놓는 순간의 설레임과도 같았다. 게다가 최근 목포시에 문화재로 기증하여 영구히 보존키로 했다는 말을 듣고 그 분의 자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그 분의 뜻을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였다 한다.

무덤던 지난 여름 이야기

이선이 집사(충성 20구역)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이와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말씀하신다. 그리고 구원, 천국을 갈망하는 우리들을 초청하시어 갱생과 만족과 구원의 은혜가 지닌 큰 축복을 받게 하신다.

주님의 초대는 큰 은혜이며 선물이다. 그곳에는 항상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고 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그 아름답던 꽃밭은 황량하게 변해 버리고 작은 씨앗 하나에 고귀한 생명력을 남긴 채 모든 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간다. 그 멋진 이 회장의 봄철 정원도 한겨울이면 영락없이 쇠락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앙상한 가지와 텅구는 낙엽일지언정 소복히 이고 앉은 눈세상은 그 정원의 또다른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거기에는 봄철 못지않은 경이로움과 또다른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열심과 존경이 있다. 눈덮인 정원에서 생명력 넘치는 사랑과 헌신이 감춰져 있지 않다면 새봄에 대한 소망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우리들의 발길도 영영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생명과 소망이 감춰져 있는 한 끊어진 발길을 탓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내년쯤이면 유학길을 떠났던 딸아이가 귀국을 한다. 일찍 학위를 마치겠다는 일념으로 아빠 엄마의 방문마저 마다하던 녀석이였다. 아직껏 내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머물고 있건만 녀석이 어느새 학위를 받아 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녀석은 아직도 예전 ‘꽃밭에서’의 음정을 바로 잡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기필코 녀석에게 다시 한 번 그 노래를 시켜볼 작정이다.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딸 선무야. 보고 싶구나.

사랑스러운 도은아!

오늘 아침에는 엄마 혼자 산에 다녀 왔단다. 도은이가 강릉 바다에서 너무 심하게 놀아 피곤할 것 같으니 실컷 자보렴. 이제 3일만 있으면 개학이지?

가을 하늘이 되었나봐. 하늘은 드높고 산 속은 나무 사이사이로 맑은 햇살을 받아 얼마나 싱그럽고 상쾌했는지 몰라. 시원한 바람과 풀잎에 매달린 꽃들도 참 예뻐단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들풀 하나도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 들여다보면 신비스럽단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란단다. 청설모를 보았는데 엄마 앞을 휩 지나가 버렸어. 우리가 산에서 아침 먹을 때 왔던 녀석이 아니었나봐. 엄마를 볼 생각도 안하는 거야.

도은아! 이번 일학년 첫 여름방학은 참 알차게 보냈지? 알프스 산과 같았던 제천의 E.S콘도클럽 여행, 교회의 여름수련회, 강릉 바다에서의 파도타기, 아침마다 학원 대신 다녔던 뒷산 이야기, 영지버섯을 발견했던 일, 산에서 아침을 먹을 때면 청설모가 곁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지. 청설모가 오지 않던 날 우린 또 얼마나 기다렸니. 밝고 시원했던 약수터 옆 시냇물, 위인전을 읽고 내려 왔던 일, 아빠와 인터넷 주고 받던 우스운 이야기들. 도은이가 친형 다음으로 좋아하는 형 친구 성규형이 캐나다에서 와 함께 뒹굴며 지낸 8일간의 즐거웠던 시간들. 예쁜 추억들을 방학 동안 만들었지.

엄마는 신사다운 도은이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참 좋겠다. 정의를 내세우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사랑으로 문제에 접근해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단다. 불쌍한 사람들과 지혜롭게 돈을 나누어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 도은이가 이 다음에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7·80살이 되어도 아빠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빨래, 청소하고 싶은데 엄마의 욕심일까(엄마가 약해서).

무척이나 어지러진 집을 잘 정돈하고 치웠을 때 엄마만 행복하단다. 어찌면 일하기에 이렇게 알맞게 손가락이 만들어졌을까? 신비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곤 하지. 생명 사랑과 물·햇빛·공기·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때나 한결 같은 우리 가족이 되길 오늘도 기도하며 엄마의 사랑이 담긴 글을 전한단다. 안녕

가을에

정해춘 집사(온유 13구역)



눈이 시린 파란 가을은
성모 마리아의 빨간 불 속으로 숨어
가을은
어느덧 서리 내린 가슴에
감사의 기도로 익어 나온다.
주여!
아직은 말매미의 외침과
쓰르라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 귀뚜라미의 고독한 언어를 들으소서.
그리고 주여,
황금물결 출렁이는 들판 옆
도랑가에 저렇게 하얗게 푸르게 피어
가을 향기를 날리는 들국화와
이름 모를 들꽃들을 가엾게 보소서.
주여!
한로(寒露)가 지났지만 아직은
무서리를 내릴 때는 아닌가 합니다.
가녀린 들국화의 잔향(殘香)이 남아 있고
기름병과 밀가루 그릇을 다 비워
헌신(獻身)한 과부가
지금도 달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함께 우리를 긍휼(矜恤)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 후 감

‘희망의 문’을 읽고

윤영범 집사(충성 13구역)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은 제5차(9월 16일) 장 바니에의 “희망의 문”에 대해 독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장 바니에와 정신지체 장애자의 공동체(라르슈)를 통하여 섬김의 참 모습을 새롭게 느끼게 되고, 우리의 믿음, 인생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디아코니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기본적인 섬김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압축하여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장 바니에의 강의와 자전적 기록을 미가서(6:8)의 위대한 기록 세 가지 계시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가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서 6:8).”

장 바니에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질수록, 사랑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경험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과 고통의 크기뿐 아니라 그 마음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알아 가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밝혀 주는 무한히 큰 존재와 무한히 작은 존재 사이의 친밀감, 하나님과 가장 가난한 자 사이의 사랑의 나눔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기에 정신지체 장애자들은 짐이요 골칫거리로 취급 받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불결하게 생각하였고 우리 자신의 가난함과 상처와 연약함을 우리의 부요함과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푸는 행위로서 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 놓은 우리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기꺼이 받아 들이는 데서부터 섬김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의 내리막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로서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놀라지 않게 하시려고 그토록 작게 되셨습니다. 즉, 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그분을 따르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분이시므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 속에 우리의 고통스런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고통이 있는 어디서나 고통을 덜어주라는 부르심을 겸손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실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환대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살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와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의 사귄은 더디지만 아름다운 희망의 문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은 매월 둘째주일 11시에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도서는 3주 전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성 경 퍼 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 가로

2. 갈릴리 3. 시나광야 5. 베다니 7. 베데스다 8. 여리고
10. 에셀나무 12. 이스라엘 13. 거라사

■ 세로

1. 달리다굴 4. 아이로 6. 니고데모 8. 여호와이레 9. 고센
11. 셀라 14. 사마리아

■ 정답 보내주신 분

김선영(자비 13구역), 이옥주(화평1구역), 김명주(충성 4구역),
정승아(사랑 7구역))님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월 9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문의 416-5181).

가로열쇠

1.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창 16:11)
3.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삼상 4:22)
5. 인자의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6. 라반의 두딸 중 첫째는? (창 29:16)
8.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는 깨닫지 못하는가(마 7:3)
11.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눅 24:13-15)
12.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이로다(요 1:36).

세로열쇠

2. 아브람과 동맹한 자 (창 14:13)
4.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민수 14:19)
7.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2:15)
9.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임이요(마 5:34)
10. 바울 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고전 5)

교 회 소 식

■ 2001년도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분들

장 로 : 황기언, 김현덕

안수집사 : 조남홍, 오종세, 김영수A, 최경호, 정해춘, 홍종건,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박종규, 한상곤, 조성득

권 사 : 전영선, 이영남A,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신관수,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A, 김혜숙A, 오영실, 박순실, 김영숙C

■ 의료선교

해외선교부와 특수전도부가 주최하는 「캄보디아 의료선교 여행」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2001. 12. 16~22 장소: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축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자원봉사요원

■ 환경부

환경부에서 폐식용유를 활용, 환경친화적 무공해 세탁비누를 만들려고 폐식용유를 수집합니다. 매 주일 지하주차장 내 지정된 곳에 모아주십시오.

■ 교인사진수첩 자료수집

2002년도 교인사진수첩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본인의 사진이 수첩에 없거나 낡은 사진인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에 등록하신 새교우들은 필히 제출해 주십시오.

■ 특별새벽기도회

하반기 특별새벽기도회가 『평강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이 주간에는 수요성서학당 외의 모든 프로그램을 쉽니다.

◆ 질문

어떤 친구가 건설업체의 경리로 일하면서 상관의 명령대로 '이중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라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친구와 가족들은 생계가 끊어지게 되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지금까지는 이중장부로 인해 회사 사장과 기록하는 자신이 공생관계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어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개인 신앙과 사회 구조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답변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의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직장에 다닐 때 참으로 많이 고민하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원리를 먼저 따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간증하신 고백들입니다. 마 6:33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도저히 세상에서 건드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16:33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막상 세상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 신앙과 세속적인 문화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계속 겪어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해결책과 방법을 강구하다가 보면 결국 신앙의 원칙들을 자꾸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마치 구두 속에 돌멩이 하나를 넣고 다니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도 괴롭고 세상살이도 원만치 못한 회색분자처럼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이것이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의 결론입니다).

형제의 친구분이 괴로워하는 부분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분명한 본인의 신앙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중장부는 나라의 세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우선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듯이 보여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좋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을 준수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종업원과 사회에 유익한 기여를 하게 될 때 사장이나 종업

원 모두의 인간다움과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계속 이런 식의 불법이 진행되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스스로 부정직하게 살았다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회사 경영도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경제적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법 앞에서 진실됨을 포기하는 아픔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고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정직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가십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말입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이 불법의 고리를 풀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잘 정리한 다음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사장님에게도 이런 취지를 인간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진솔하게 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 좋은 이해를 갖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5:13-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롬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님과 친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동 시

연 필

이재현(초등 2)



연 필 은 내 마 음 을
잘 알 아 준 다 .
기 분 좋 을 때 는
또 박 또 박
기 분 이 나 났 을 때 는
삐 뚫 삐 뚫
그 러 니 까
연 필 은 ,
친 구 !